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33화 제타 태자의 동산



수 닷타는 훌륭한 장소를 찾았다는 기쁨으로 그만 그 땅이 어떤 곳인지 물어버리고 있었다. 그 숲은 바로 이 나라 코살라국의 왕자 제타(Jeta)의 개인 땅이었다.

“어떤 놈들이 나의 숲을 허락도 없이 들어와 있는가. 이곳이 나의 소유인지 몰랐던가? 그대는 수닷타 슈레슈틴(Sreshthin)이 아닌가? 그대가 비록 이 나라에서 제일가는 부자라 하더라도 나의 사유재산을 함부로 침범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가 없다. 이 태자를 무시하지 않고서는 어찌 감히 이곳에 발을 들여 놓을 수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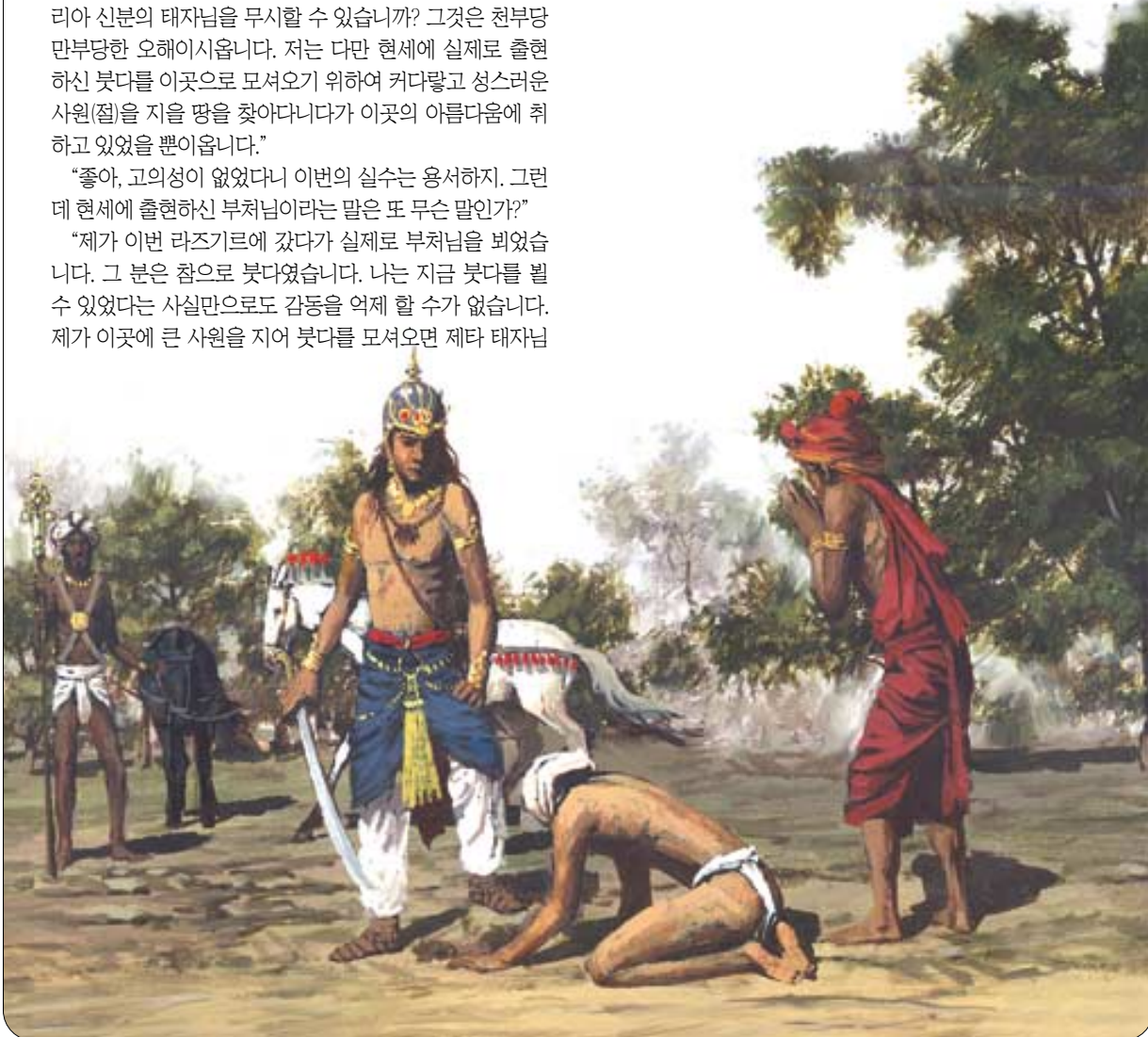
“겨우 바이사의 신분으로 어찌 감히 하늘같은 크샤트리아 신분의 태자님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오해입니다. 저는 다만 현세에 실제로 출현하신 붓다를 이곳으로 모셔오기 위하여 커다랗고 성스러운 사원(원)을 지을 땅을 찾아다니다가 이곳의 아름다움에 취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좋아, 고의성이 없었다니 이번의 실수는 용서하지. 그런데 현세에 출현하신 부처님이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제가 이번 라즈기르에 갔다가 실제로 부처님을 뵈었습니다. 그 분은 참으로 붓다였습니다. 나는 지금 붓다를 뵈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동을 억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곳에 큰 사원을 지어 붓다를 모셔오면 제타 태자님

도 그 분을 뵈 수 있습니다.”

“코살라의 위대한 제타 태자시여, 제가 이 일대를 샅샅이 돌아보았으나 이 동산만큼 모든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곳은 다시 없습니다. 이곳만이 성스러운 붓다를 모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분을 이곳으로 모셔오기만 하면 우리 코살라의 백성들도 마가다의 백성들처럼 붓다의 법문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번만은 태자님께서 양보하시고 이 땅을 제게 양도해 주십시오. 물론 제가 응분의 가격을 지불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만큼의 돈을 드리겠습니다.”



수 닷타, 그대는 참 고집이 세군. 비록 그대가 큰 부자라 할지라도 나의 동산을 살 수는 없다. 이곳은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대가 자꾸만 귀찮게 요구하므로 그대가 살 수 없는 가격을 부를 것이다. 우선 사고 싶은 땅만큼의 황금을 깔아라. 그러면 황금이 덮인 만큼의 땅을 그대에게 팔 것이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대답이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조용히 물러서라. 그러면 모든 것을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이번 한번만은 특별히 용서하여 주겠다.”



제 타 태자의 엉뚱한 흥정을 들은 수닷타는 그 다음날부터 그의 전 재산을 다 황금으로 바꾸어 태자의 숲을 황금으로 덮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원하시는 땅의 십분의 일도 채 덮기 전에 벌써 황금이 다 떨어져지고 말았다.

“내가 평생 동안 피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여 코살라국 제일의 부자가 되었는데 그 모든 재산이라는 것이 붓다를 모시려는 땅의 십분의 일도 덮지 못할 정도의 황금 밖에 안 되었던 말인가...”



물 론 다른 장소의 한 땅을 사들이면 수닷타의 재산으로 충분하고도 남을 것이었다. 그러나 최고의 성인을 모시는 사원을 짓는 데는 최고의 장소를 필요하다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수닷타의 마음이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과연 이곳 제타 태자의 동산만큼 아름다운 곳은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마침내 낙심한 수닷타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슬픔에 젖어 있었다.

그때 수닷타가 좌절하며 주저앉은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제타 태자였다. 그는 수닷타가 얼마나 악착같이 돈을 모았는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렇게 모은 돈을 모조리 땅바닥에 깔도록 요구한 것은 참으로 잔인한 시험이었다. 그러나 수닷타는 더 이상 아무런 애착도 없이 그

가 생명처럼 아꼈던 전 재산을 땅바닥에 깔고 있었던 것이었다.

“도대체 무엇이 수닷타로 하여금 저런 행동을 하게 하고 있는가? 아무리 붓다라 하여도 단 한번 만나고는 수닷타를 저처럼 변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렇다면 전설로만 들어오던 부처님이 현세에 출현하셨다는 수닷타의 말이 정말이었을까? 좋다 수닷타여, 내 이 동산을 그대에게 기꺼이 주리라. 그 뿐만 아니라 붓다를 위한 사원을 짓는데 필요한 목재도 줄 것이다. 그대는 지금 땅에 깔린 황금을 다시 거두어 그 돈으로 그대가 원하던 붓다의 사원을 짓도록 하라.”

